

아간보다 더 억울한 웃사(?)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뻘 무리 삼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라 저를 그 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그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후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 오니라 [개역, 사무엘하 6:1~15]

저번 주 설교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비슷한 예로 구약에서 아간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죽을 일이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차마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느낌이지요?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귀중한 일을 하시는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망치게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의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도 아니고 제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의 마음을 실족케 하거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거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아간보다는 구약의 웃사가 더 억울해 보이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의문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든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 분이 오늘 여기 계셔야 하는데...

웃사가 아간보다 더 억울해 보인다? 과연 그런지 내용을 살펴봅시다. 웃사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나도 언젠가는 이런 경우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분이 더러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부디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보다가 두렵고 걱정이 되면 다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께나 저에게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사랑의 메시지가 틀림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죽이고, 심판하고, 벌준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눈이 그 쪽으로 발달된 것 같아요. 구약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과연 웃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살펴봅시다.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모아서 올라갑니다. 궤 하나 메고 오는데 무슨 군사를 3만 명씩이나 동원합니까? 그것도 엄선해서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5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알고 블레셋이 처음부터 기를 꺾어야겠다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궤를 가지

러 갑니다. 이 궤를 가지러 갔다가 잘못하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3만 명이나 거느리고 간 것이죠. 또 다른 의도는 이 궤를 몇 명이 가서 가져오는 것보다 각 지파 별로 대표를 뽑아서 거국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한 민족의 단합을 노리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이끌고 궤를 메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정중히 모셔오려는 모습이 있지요?

새 수레.

예, 수레가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면 지금 식으로 하면 새 차를 한대 뽑아서 단장을 다 했겠지요? 새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총동원 되고 있지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앞에 악대를 세우고 새 차로 실어오려고 간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고적대 퍼레이드라고 말하죠. 북도 치고 나팔도 부는 악대를 가리켜서 고적대라 하는데 바로 이런 고적대를 앞세우고 새 수레에 궤를 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당히 예를 갖춘 것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정중하게 모셔오려고 방법을 동원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궤를 모셔오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동기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펴하거나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 것이니 죽을까 하노라’**라고 합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를 도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였습니다. 강물에 들어가던 장면 생각나시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강물에 발을 먼저 디디야 했습니다. 반드시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갔던 것이 잘못입니다.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 타고 가는 것이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해 놓읍시다. 값을 따지고 들/사람이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 일을 많이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비슷한 예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살찌고 귀한 것을 다 빼돌렸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책망을 하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던지 알았던지 수레에 궤를 실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잘못은 떨어지려는 궤를 웃사가 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메야 한다, 손대지 말라. 그렇게 명해 놓았지만 웃사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누구라도 그 곁에 있었으면 떨어지는 것을 일단은 손으로라도 잡아야겠지요. 손으로라도 잡긴 잡아야겠고 하나님의 방식에는 맞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죠?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난처한 형편에 처하지 않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도 회개하거나, 아니면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웃사를 친 것은 너무 심한 행위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혹시라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봐 엉덩이를 쳐들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한다고 하던가요? 혹시 보이면 죽을까 싶어서 그런다는데 그 분들 꿈도 야무지다 그지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나타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분 앞에 당당히 나서도 아무 탈이 없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앞에서는 사소한 잘못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벰에돔의 집에 석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답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는 이 켜가 얼마쯤 있었을 것 같아요?

3년... 20년.

20년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어디선가 20년이라는 기록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또 다른 답은요? 이 켜가 몇 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느냐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켜가 언제 빼앗겼다가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적당한 기간이 나와요. 이 켜가 언제 빼앗겼지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지요. 엘리 제사장 말년에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고 그 켜가 블레셋 지경에 가 있다가 얼마 후에 스스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와서 갖다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말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어린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사로써 임무를 다 감당하고 죽고 난 한참 뒤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 얼마 경과된 때입니다. 어림잡아도 70-80년이 나옵니다.

오벰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적게 잡아도 70년이 넘습니다. 3개월의 몇 배나 되나요? 210배라고 하지 마세요. 280배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켜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집에는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유 생각나세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침 일찍 일을 시켰습니다. 정오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 또 데려 왔습니다. 임금을 똑같이 줬습니다. 누가 불만이 있었지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불만이지요? 하루종일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이 임금을 똑같이 준단 말입니까? 여기는 더 심합니다. 3개월과 280배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3개월 있었던 집에는 복을 많이 주고 280배나 더 오래 있었던 집에는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몇 시간 차이 가지고도 데모를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벰에돔의 집과 아비나답의 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삼상 7:1-2절에 오벰에돔의 집에 켜가 들어올 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켜를 지키게 하였더니 켜가 기랴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은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여기에 2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좀 전에 20년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아마 이 구절을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는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20년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켜를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본문의 다윗이 등장할 때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로 나설 때까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랴여아림 사람들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켜가 벤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벤세메스 사람들이 켜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서 뜯어 본 거예요. 이 법궤를 들여다 보았다가 한 마을에서 70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켜를 여기에 두었다간 큰 일 나겠다. 그래서 옮길 곳을 물색하다가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맡겼을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지요? 왜 산에 있는 집에 갖다 놓나요? 아무래도 외따로 떨어진 집에 맡겨놓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켜를 지키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더라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오벰에돔과 다른 점입니다. 오벰에돔은 민수기에서 읽어 드렸던 것처럼 고핫 자손입니다. 웃사가 죽고 다윗이 두려워 궤를 포기했을 때 오벰에돔이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나섰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억지로 진 십자가나 마찬가지로 겁니다. 그 위험한 물건을 자기 집에 메다 놓은 겁니다. 대상 13: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고 했지요?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까요. 표현이 다르지요? 권속과 함께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식구들이 함께 그 궤를 기뻐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들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이름은 엘리아살이라 했는데 본문의 죽은 아들은 웃사지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손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웃사는 엘리아살의 아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니 처음에는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다가 그 다음에 엘리아살의 아들에게 대물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궤를 지키게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좋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제사장들이 취급하는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물건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물건은 제사장만 사용해야 되는데 혹 다른 사람에게 갈 위험이 있는 것은 특별히 거룩한 것이라라고 말씀해서 남용이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항 재료 같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궤가 들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그 근처에 얼씬 하려고 하지 않으니 제비뽑기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떠맡겼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런 모습을 가리켜 거룩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을 거룩하게(?) 모시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회식을 가면 한 사람이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그 분의 역할은 교장 선생님을 가급적 빨리 모시고 나가는 일입니다. 식사만 하고 교장 선생님 모시고 빨리 가줘야 다른 분들이 마음놓고 놀지요. 그럴 때는 높은 사람은 빨리 가야 합니다. 버티고 앉아 있으면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특별히’ 좋은 곳으로 따로 모십니다. 집에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거룩하게(?) 모시지 마십시오. 한쪽에 거룩히(?) 모셔 놓으면 어른들은 궁금하고 답답해서 못 견뎌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이런 방식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인지 알았어야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을 알아두어야 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고 시집을 갔으면 신랑 식성이라도 알아야 하는 법인데 하나님의 궤를 들여왔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책망을 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웃사가 다윗이 새 수레에 신자고 하더라도 다루는 법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넘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벰에돔의 집에서는 이 궤가 들어왔을 때 온 가족과 함께 궤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집에는 70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복도 내리지 않았고, 반면에 겨우 3달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오벰에돔의 집에는 표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표시가 날 만큼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왔을 때 그는 무척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아 저 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벤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던 것 기억하지?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잘 모셔다 놓고 감춰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엘리아살이 맡아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역할 분담은 우리도 종종 합니다.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할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좋은 방법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가 할테니 당신은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오세요. 이런 식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옷사를 즉석에서 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왜 죽은 옷사만 생각하고 7, 80년 동안 뒷방 늙은이 취급당했던 하나님의 서러움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 때 이 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터에 이걸 메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 해서 메고 나갔지요. 왜? 우리 조상들이 싸울 때마다 이 궤를 메고 싸웠다는 말을 기억해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악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이 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빼앗겼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셨지요. 하나님 혼자서 블레셋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이 없는 들에다 방치해 놓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연인지 살펴보자. 궤가 벧세메스로 돌아온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취급되었습니까? 성막 지성소 안에 모셔놓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1번 분향을 했던 바로 그 궤입니다.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일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겹옷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 동안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죽었을 때 누가 끌어내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몸에 긴 끈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취급했던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벧세메스로..., 벧세메스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 본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도 이렇게 팔세받고 천대 받으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80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어디 가고? 모두 사라진 채, 모두에게 잊혀진 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진노가 없었던 것만 해도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 궤를 옮겨올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자식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몇 일이나 견디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소리가 대번에 나올 겁니다.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동안 참고 참았는데 막판에 결국 터진 겁니다. 옷사의 죽음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옷사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며 위엄은 다 떨어진 채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옷사의 죽음만 억울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세월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옷사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살펴보세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신, 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자식에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복이 쏟아지는 법입니다. 매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아는 자식에게는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오벰에돔의 집에 겨우 3달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8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벰에돔의 집에 이런 큰 복을 주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런 재앙이 내리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간을 따지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지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런 생각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기간이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이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낮설어요. 20년을 다녔다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2주에 한 번씩 낮 예배만 갔어도 500번은 넘네요 이러더라구요. 계산 맞습니까? 계산은 맞아요. 낮예배 500번 갔다.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횡수, 기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오래 다녔다, 많이 일했다,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느냐? 바르게 잘 섬기느냐 입니다.

옷사를 치시는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지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이런 두려움은 깨끗이 버리십시오. 무엇 때문에 벌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벌 안 주려고 70년을 참고 견디신 모습을 기억하셔야지요. 겨우 석달 만에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잘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단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한마디에 그 강도는 천국 갔습니다. 억울합니까? 저런 강도가 저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강도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강도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나은가 하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효자제일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 됩니다. 그 긴긴 세월 동안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이 교회를 지키고 애써왔던 분들은 아마 오벰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뛰어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아멘.

성경에 그런 구절 있어요? 눈치빠른 사람이 이 본문에도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다가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하여 그냥 가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오벰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뛰어옵니다. 지난 번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옵니다. 이번에는 새 수레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메고 갑니다. 그 사이에 다 알아챈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벰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단다 그 말 듣고 바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고 갑니다. 오벰에돔이 복을 더 받았을까요. 다윗이 더 받았을까요. 엄청난 복은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처럼 눈치 빠르게 뛰어오신 분들이 여기 상당히 계십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바로 이렇게 뛰어오신 여러 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 근처에 이사오는 바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데도 아멘해요? 무조건 아멘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본문 한 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으며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덩이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온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왔다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온 백성이 다 복을 받을 때 못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같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집에 가서서 읽어보세요.

다윗과 오벰에돔과 백성들이 받았던 그 풍성한 복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웃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웃사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오벰에돔을 보십시오. 웃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차라리 벌을 주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는 하나님을 보세요. 더욱 좋은 것은 기회만 되면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난 하나님을 보십시오.